"보살되려는 주부불자 오세요"

'자비의 전화' '간병인 협회' 등 자원봉사 전문 교육 실시

"방송을 통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은 힘이나마 돕고 싶어 이웃 불자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하는 평택시 비전동의 현환희행보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맞은편 사법연수원 앞마당에서 구조대원들에게 밥과 김치, 불고기 등 식사제공 자원봉사를 하며 현보살은 분주하기만 했다.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현보살은 힘들었지만 사고를 겪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뿌듯하다고 말한다.

현보살뿐만 아니라 많은 주부들이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과연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의아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대부분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해 봉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해가는 불자들의 의식변화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보여줬던 불자주부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봉사단을 총괄하는 종단차원의 불교 종합자원봉사단이 발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봉사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의 80%이상이 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봉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자원봉사교육양성기관과 자원봉사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불교부인회, 불교어머니회등 여성신행단체를 통해서도 불자주부들은 병원자원봉사와 군포교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길음, 삼전, 본동,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등 교계위탁 복지관들도 지역복지를 여법하게 실천할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어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봉사를 할수 있다.

이같은 단체를 통해 할수 있는 봉사 또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비롯 환경보호, 무료급식, 반찬제공, 세탁서비스, 청소년지도, 방송모니터, 무료이·미용, 간병활동 등 다양해 불자주부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개인과 단체, 사찰단위로 펼칠 수 있다.

얼마전 자비의 전화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있는 불자

단체명	봉사내용	연락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의료봉사, 무료급식, 방송모니터, 수지침, 교도소 방문, 양로원, 고아원 방문, 장애인 방문, 환경보호 등	(02)723-6258
자비의 전화	전화상담	(02)737-7378
간병인 협회	간병	
연꽃마을 자원봉사회	양로원 방문 등	(02)203-3677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02)744-3413
자비의 집	무료급식	(02)945-4200
대한불교부인회	병원봉사	(02)736-5035
불교어머니회	군포교	(02)602-1596
길음 복지관	무료급식, 세탁·반찬 서비스, 청소년 지도, 환경보호, 말벗, 여과지도, 행정업무 대행, 간병, 외부모 의형제 결연 등	(02)985-0161
삼전 복지관		(02)421-6077
본동 복지관		(02)817-8052
금강 복지관		(0461)856-6110

효율관리 기구 필요…종합봉사단 곧 발족

주변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참으로 많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자원봉사시민대학, 불교전문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 카운셀러교육, 간병인 협회의 간병인 교육 등의 몇몇 단체에서는 스스로 봉사활동에 뛰어들려는 불자주부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봉사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길음사회복지관, 25일부터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문화 유적답사'를 개최한다.

국민학교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28일과 8월8일~10일 3차에 걸쳐 경기도 일원의 문화유적을 답사할 예정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길음복지관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와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게 된다. (02)985-0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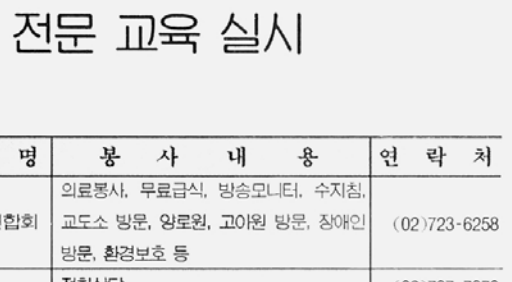
이리후 건강칼럼 <28>

유독성 화학물질 남용 정자 생산 감소 초래

번식기능 위기

동물들이 자기의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짝짓기 행동은 본능적인 것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번식기가 되면 발정을 하고, 발정기에는 교미를 통해 수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거의 일정한 주기를 갖고 진행된다.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동물과 다른 것은 일정한 발정기가 있다거나 오로지 번식만을 한 생식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적 행동으로 성행동이 이루어진다. 포유류 가운데 진화계열이 높은 종일수록 사회화와 관련된 학습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말을 바꾸면 사람과 같은 진화된 종에선 본능적인 생식보다는 사랑의 정서에 의한 학습결과가 더 작용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가 있다. 새끼원숭이를 따로 떼어 어미원숭이나 동료원숭이와 접촉을 못하도록 격리시켜 키우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성행동을 못하며 새끼를 낳아도 보살피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이보다 사람은 더 진화단계가 높으니 학습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사람이란 고등감정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배움으로써 본능적 욕구에 더하여 정신적인 사랑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성기능을 설명할 때 이런 심리적인 조건과 남성의 고환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테스트스테론의 양이 함께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면 고환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의 양이 적거나 뇌에 있는 뇌하수체란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토락틴이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남성의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생식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번식기능의 위기를 추궁하면서 찾아낸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즈음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남성의 정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덴마크의 에스브제트크에서 열린 한 환경모임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유독성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최근 40년 동안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40%나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생물학적 욕구의 감소는 사랑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조금 비약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진화(?)해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원래의 동물적 생식본능도 수행키 어려워지지 않을런지 자못 걱정스럽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인천(千)의 장 *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일반의 길을 모른다면

이향원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충청지사 • 전화 0631-281-2534
강원지사 • 전화 0416-856-3280

유니폼 유니피스
대표 김영길
• 사무복
• 호텔복
• 볼링복
• 각종단체복
본사 : 부산시 동구 범일1동 95-2 고려B/D 4층
전화 : 代 (051) 645-7751, (051) 645-9629
팩스 : (051) 645-9630
호출 : 015-502-2298
한성어패럴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흠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목